

# “참가자에 광주 기억 간직하게 해야”

## 광주수영대회 성공, 레거시에서 찾다

### <5>스위스 로잔 국제수영연맹에 듣는다

개최 도시 인프라 개발 기회  
선수·코치 등에 최적 조건 제공  
러 카잔·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레거시 사업 가장 잘된 도시



국제수영연맹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

스위스 로잔(Lausanne) 국제수영연맹(FINA)은 세계 수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로잔에는 각종 국제스포츠연맹이 집결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비롯해 국제수영연맹(FINA), 국제양궁연맹(WA),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등이 위치해 있다.

1908년에 설립된 국제수영연맹은 수영 종목 경기대회의 국제관리기구다. FINA의 공식 수영종목은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및 하이다이빙이다. 타종목과 달리 하이다이빙은 지난 2013년 뒤늦게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첫 대회는 1973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됐으며,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는 18회째다.

FINA는 도시마다 수영대회 개최 이후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모든 대회에서 '경제적 효과 및 이미지가 상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FINA 관계자는 "수영대회의 레거시(Legacy)는 대회 개최국, 도시를 선점하고 조직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며 "개최도시의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수영 수준 향상, 관광 분야 매력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치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5년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는 등 참가자들이 모든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참가하기 때문에 개최국의 추가 수입도 늘었다.

FINA는 대회 개최국에 바라는 레거시 정책 방향성은 대회에 참가자의 '만족'을 우선으로 손꼽고, 이는 대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한다.

FINA 관계자는 "개최국과 조직위는 선수, 코치, 임원, 관중, 미디어, VIP, 후원사 및 파트너 등 모든 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모든 작업이 훌륭하게 수행된다면 레거시는 보장된다"고 전했다.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레거시 사업이 가장 잘 된 개최국으로 러시아 카잔

를 세계에 알렸다.

또 2017부다페스트 수영대회의 경우 두나 아레나(Duna arena)수영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부다페스트의 수영 종목 전반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FINA 관계자들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광주만의 독특함(Unique)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대회를 열 때마다 여는 개최국이 베스트여야 하고 광주도 최고일 것"이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정신, 아름다움 및 환대를 나타내서 기억을 간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대회를 준비할 때는 모든 디테일이 중요하다. 우선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경기장 부분이다.광주에 호텔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선수촌은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선수들이 만족을 할 것이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레거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수영은 평생스포츠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어린 수영인을 육성하고, 참여자를 늘렸으면 한다"면서 "수영 경기장 시설들이 좋으면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질 것이고, 다양한 종목을 알게 되고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다. 수영 종목이 인기종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로잔=오광록 기자 kroh@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계 수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로잔의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국 전경.

# 임금협상 결렬 광주 시내버스 파업하나

## 전남 지노위에 조정 신청 한노총 전국 버스파업 공언 영향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절차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줄게 되는 임금 감소분 대책 마련을 사측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이다.

버스노조가 가입한 한국노총이 15일 전국단위 버스 파업을 공언한데다, 임금 인상액을 두고 노사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버스업체는 대진운

수를 제외한 9개 업체다. 조합원 규모는 1500여명, 차량 규모는 1044대다.

지노위 조정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 불성립시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파업)를 할 수 있다.

버스노조는 운송사 측과 임금협상에서 대전 등 다른 광역시 운전기사와 형평성 등을 들어 임금 10.9%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적자 상태인데다 시 보 조금 액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639억원(운송원가 대비 지원 비용 32.6%)을 광주에서 지원받는 등 매년 보조금이 늘어나는데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129명의 운전원을 신규 채용해 올해부터는 54억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아야 해서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와 여러 가지로 유

사한 대전보다 월 17만원 정도 수령액이 낮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되면 기존 월 24일에서 2일 줄어든 22일 근무로 돼 월 50만원가량 실수령액이 더 줄어든다"며 "납득할 만한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급여액 평균은 수당 등을 다합쳐 10년차 기준, 세전 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가입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납득할 만한 임금 인상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국단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데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양측 입장차가 커 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18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린이날 큰잔치 1일 광주 동구 용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97회 어린이날 큰잔치에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일·성과 중심 인사체계 전환

## 핵심현안 담당공공모제 도입 격무기피 업무 인사가점 강화

광주시가 '일'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바꾼다.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핵심 현안 담당공공모제 도입 ▲인사 가점제도 전면개편 ▲정책연구 TF팀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인사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시정현안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있는 직원을 공개 경쟁 선발하는 '핵심현안 담당공공모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괄목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실·국 주무과

가 아니더라도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발탁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전문성과 보상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및 격무기피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강화한다. 이달의 공무원·핵심현안 담당관, 중앙부처 파견근무 우수자 등도 가점을 신설하고, 가점제도 운영 실적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서 성과 평가(BSC) 가점은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개월 간 인사가점 제도 개선을 위해 가점제도 분석과 타 지자체 가점제도 조사·분석, 직렬별·노조 대표 등이 참여한 인사혁신 TF팀 및 전문가 자문회의,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30일 최종 확정했다. 또 가점제도 운영 절

차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 직원 25~30명으로 구성된 '직원 배심원단'과 민선7기에 구축한 희망인사시스템에 '실적가점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연구TF팀'을 운영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역량교육 시범실시 등 단계별로 역량교육 및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식 광주시 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사운영계획은 민선7기 2년차 시정혁신 추동력 강화와 미래 시정을 견인할 수 있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The 청렴하면 **더** 행복해요!

시민과 함께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